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에 관한 기호학적 접근*

— ‘지각적 판단’과 ‘논리적 해석체’를 중심으로

홍승혜**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명제 기호 생성의 선행 단계: 지각적 판단
- III. 정보 및 개념화의 기반: 논리적 해석체
- IV. 논리적 해석체에 기반한 정보의 성장
- V.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비교
- VI.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를 퍼스의 기호학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명제 기호의 재현적 특성을 인지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A는 A이다’와 같은 동격 향진적 표현은 하나의 문형으로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유한 기호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명사+이다’ 형태를 띠는 두 명제 기호의 서술어는 주어를 범주화하거나 두 개념을 등치 관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명사+이다’의 서술어는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화자가 특정 관념을 개념화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이는 대상으로부터 특정한 자질(quality)을 분해하여 해석하는 과정인 ‘지각적 판단

* 이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 고려대학교 박사후연구원, happy_sh@korea.ac.kr

(perceptual judgment)’ 및 명제 기호의 형식을 띠는 ‘논리적 해석체(logical interpretant)’에 기반함을 논의한다. 두 개념은 같은 표현이 화자와 맥락에 따라 대상에 관한 다른 서술 관념을 재현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준다. 한편 본 연구는 항진적 표현의 경우 명제 기호를 이루는 두 관계항이 같다는 점에서 은유와 형식적 측면에서 구분됨을 지적하고, 두 명제 기호의 차이는 해석자가 특정 관념을 참조하는 동기와 그로부터 비롯된 기호의 재현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두 명제 기호의 서술어 기제에 대한 메타적 이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제 번역 및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 훈련 등 언어기호를 매개로 하는 소통에 관한 연구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열쇠어 : 명제 기호, 항진적 표현, 은유적 표현, 지각적 판단, 논리적 해석체, 퍼스 기호학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일반적인 명제와 구분되는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를 ‘지각적 판단’, ‘논리적 해석체’라는 퍼스(C. S. Peirce) 기호학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표현 사례들로부터 재현적 특성의 일반성을 포착함으로써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을 생성하게 되는 동기를 인지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명제 기호는 표상체와 대상이 맺는 관계적 측면에서 상징 기호로 구분되지만,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이 재현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습이나 법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려는 대상 혹은 그에 관한 현상이나 사건 등으로부터 지각되는 자질(quality) 및 발화 맥락 등 현상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바이다.

항진적 표현이란 ‘A는 A이다’의 형태로 같은 명사 혹은 명사구가 주어와 서술어 자리에 반복되는 명제 기호의 형식을 일컫는다. 이는 표면적 의미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통 ‘항상

진리인 명제’, 즉 ‘항진명제(tautology)’라 칭해진다. 하지만 건조한 대기 상태를 두고 발화된 ‘겨울은 겨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는 A이다’의 문형은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 항진명제의 성격을 띠지만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A=A’라는 의미를 재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문형은 일상생활 가운데 특정한 메시지를 함축하는 기호로서 작동하고 또 그렇게 소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항진적 표현’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해당 형식으로의 표현은 몇 가지 관습적 사례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명사들이 범주적 제약 없이 결합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표현으로부터 일반성의 포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항진적 표현의 인지론적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최중열(1992)이 있다. 그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명사구의 속성이 참이라는 사실을 그 명사구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서 항진적 표현이 발화된다고 설명하였다.¹⁾ 하지만 이러한 가설이 일반적인 인식작용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밝히지 못했음을 연구의 약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²⁾ 그밖에 동격 한국어 항진적 표현의 의미적 측면을 논의한 선행연구로는 이미순(2009), 이정애(2010), 전해영(2012) 등이 있다.³⁾

이처럼 한국어 항진적 표현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 양식으로 정착되어 있음에도, 표면적으로 동어반복의 형태를 띠는 문형을

-
- 1) 최중열(1992)과 본 연구는 항진적 표현의 생성 기제를 인지적 측면으로 확장하여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 갖지만, 본 연구는 화자, 즉 기호 생성자의 관점에서 항진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를 논의하여 기호의 재현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화자와 청자의 인지 세계의 교집합을 고려하는 상기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 2) 최중열, 「항진명제(tautology)의 의미해석」,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소, 1992, 150쪽.
 - 3) 이미순(2009)은 청자가 항진적 표현의 가능한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해석을 추론하는 측면을 적합성 원칙에 기대어 논의하였다. 이정애(2010)는 항진적 표현의 의미 기술을 ‘일반화의 인식과 부정, 인간 본성에 대한 체념적 인식, 현실 상황 수용, 차이 없음의 인식, 한계에 대한 인식’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전해영(2012)은 항진적 표현의 화용적 전제를 제시하고 해당 표현의 사용 의도를 ‘청자의 공감 유도, 청자 설득, 화자의 새로운 인식 표현’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생성하게 되는 인지적 과정 및 같은 언어적 표현의 함축적 의미가 화자 및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유 등 기호의 근본적 기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항진적 표현은 명제 기호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은유적 표현과 유사성을 갖지만 주어와 서술어를 이루는 두 명사(구)가 같다는 점에서 은유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문형으로서 그 일반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상징으로서의 기호의 생성 측면에서 인지 과정을 논의하고 은유적 표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항진적 표현의 고유한 기호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진적 표현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개별적 표현들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어로 제시되는 대상에 관한 화자의 관념을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대표적인 사례로서 레빈슨(S. C. Levinson)은 ‘전쟁은 전쟁이다(War is war)’라는 항진적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전쟁에서는 항상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며 이를 두고 특수한 재난이라고 통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설명한다.⁵⁾⁶⁾ 이때 해당 표현의 서술어는 ‘명사+이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특정 대상에 관한 주관적 관념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철수는 학생이다’, ‘저 사람은 김은희다’의 서술어의 기능과 분명히 구분된다.

한편 항진적 표현의 서술어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와 비교될 수 있다. 해당 은유적 표

4) 물론 모든 ‘함축(implicature)’의 사례가 개별적 표현의 주어 자리에 제시되는 대상에 관한 관념을 재현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례로 현재 시각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The milkman has come’이라는 표현은 ‘milkman’이라는 대상에 관한 설명을 함축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의 경우 문장의 표면적 의미로부터 milkman이 일정한 시간에 온다는 경험적 사실이 참조되어 ‘7시쯤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Levinson 1983:3장 참고).

5) S. C. Levinson, *Pragmatic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111.

6) 레빈슨이 제시한 해당 표현의 함축적 의미 가운데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며 이를 두고 특수한 재난이라고 통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장의 내용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주어로 제시된 ‘전쟁’이라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판단하고 해석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선행하는 문장 내용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현들의 경우,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호수’ 또는 ‘초콜릿 상자’라고 특정 대상을 하나의 타입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와 초콜릿 상자의 관념으로 특정 대상의 속성을 설명한다. 퍼스는 은유(metaphor)를 하위도상(hypoicon)의 한 사례로서 ‘다른 기호의 유사한 특성(character)을 재현함으로써 표상체(representamen)의 재현적 특성을 재현하는 것 (CP 2.277)’으로 설명한다. 일례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은유는 ‘잔잔함’이라는 ‘호수’의 재현적 특성을 통해 ‘내 마음’의 특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다만 퍼스가 설명하는 은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내 마음’과 ‘호수’가 같은 ‘잔잔함’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호수의 잔잔함에서 지각되는 자질적 특성이 내 마음의 상태와 유사성을 지냄으로써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임을 설명해준다는 것이다.⁷⁾ 이를 참조하여 ‘전쟁은 전쟁이다’와 같은 항진적 표현을 은유의 사례로 접근해보면 ‘전쟁’이라는 기호의 재현적 특성을 ‘전쟁’이라는 기호의 재현적 특성을 통해 재현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앞서 제시한 레빈슨의 사례에 적용한다면, ‘전쟁’의 재현적 특성으로 ‘필연적 끔찍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진적 표현은 낯선 대상의 속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익숙한 대상을 보조관념으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은유의 사례와 구분된다. 후술하겠지만 은유는 주어와 서술어를 이루는 서로 다른 두 관계항(relatum)으로부터 자질적 유사성을 찾지만, 항진적 표현은 두 관계항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 지점에서 특정 대상에 관한 판단으로부터 은유적 표현과는 다른 형태의 항진적 표현을 생성하게 하는 동기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항진적

7) Anderson(1984)의 설명에 따르면 유추(analogy)는 명제를 구성하는 두 관계항이 같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은유(metaphor)는 두 관계항의 결합으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는 유사하지만, 기호의 생성 동기 및 재현적 효과의 측면에서 두 유형의 명제 기호가 분명히 구분됨을 밝힐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항진적 표현 및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가 갖는 재현적 특성 및 두 명제 기호가 갖는 의사소통적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항진적 표현에서 ‘명사+이다’의 형태로 주어 자리에 제시되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인지적 과정 및 그 전제 조건을 퍼스 기호학의 ‘지각적 판단’, ‘논리적 해석체’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당 개념들은 은유적 표현의 생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항진적 표현의 서술어가 갖는 재현적 특성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뒷받침해주고 그 의미의 모호성을 일부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명제 기호 생성의 선행 단계: 지각적 판단

‘목소리가 꿀이다’라는 표현과 같이 ‘명사+이다’의 형태로 주어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술어를 이루는 명사에 관한 기본적 개념 및 그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에 관한 관념의 개념화가 요구된다. ‘꿀’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목소리의 상태를 ‘꿀이다’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재현하는지 아는 것은 ‘언어적 지식’에 한정된다. 한편 꿀이 어떤 자질적 속성을 갖는지 아는 것은 꿀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넘어 ‘정보’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정보의 습득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일례로 꿀을 맛봄으로써 ‘달콤함(sweetness)’의 자질을 지각하고 ‘이것(꿀)은 달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퍼스는 이를 ‘지각적 판단(perceptual judg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아래 퍼스의 설명에 따르면 지각적 판단은 외부의 대상을 지각하는 과

정에서 불수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비로소 외부세계의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각 대상(percept)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보기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용(operation)이 일어난다. 그것은 개인이 지각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은 정신 명제(mental proposition)를 형성하는 행위(act)로, 이를 채택하거나 동의하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EP 2:191; CP 5.115).”⁸⁾

지각적 판단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신 명제에 관해 퍼스는 다른 곳에서 “언어나 다른 상징을 이용한 지각 대상에 대한 정신의 기술(mental description)(MS[R] 939:25)”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개념은 아래 퍼스가 설명한 지각적 판단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신 명제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지각 대상은 주어 자리에, 지각자가 그 대상으로부터 분해한 자질을 설명할 수 있는 혹은 해석할 수 있는 관념은 서술어 자리에 제시되는 기제를 갖는다. 이는 곧 언어와 같은 상징 기호를 매개로 발화되고 소통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것은 파랗다(this is blue)”라고 생각할 때, 지시사 “이것”은 당신이 방금 당신의 주의(notice)를 끈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형용사는 당신이 익숙한 관념(familiar idea)을 그것(“이것”)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P 3.417).”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생성 및 발화 역시 특정 대상에 대한 지각적 판단이 선행된다. 일례로 ‘목소리가 꿀이다’라는 은유적 표현의 발화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이것(목소리)은 어퍼하다’와 같은 정신의 기술로서 일부 자질을 분해하여 지각적 판단이 이뤄졌을 때 비로

8) 홍승혜, 『향진적 표현의 기호학적 접근: 명사의 서술 관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27쪽에서 재인용.

소 가능해진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음성의 속성을 익숙한 관념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지각적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그 음성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부드럽다, 감미롭다’와 같은 형용사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형용사의 경우 기호와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의 관계가 관습화되어 있으므로 언어적 학습을 통해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한편 어떤 목소리를 ‘꿀이다’라고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지각자가 ‘꿀’에 관한 익숙한 관념으로 그 목소리의 속성을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꿀에 관한 특정 관념이 ‘꿀’을 매개로 개인의 내면세계에 개념화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꿀에 관한 친숙한 관념의 형성 역시 꿀과 관련된 지각적 판단에 기반한다. ‘꿀이 어떠하다’와 같은 지각적 판단을 한 경험이 전제되었을 때 꿀의 자질적 속성을 개념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 관념에 기반하여 또 다른 대상의 속성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아는 언어적 지식만으로 대상으로부터 지각된 자질적 속성을 설명할 수 없다.⁹⁾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형용사의 사례와 구분된다.

다마지오(A. Damasio)는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지각(perception)’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지각과 지각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은 언제나 언어 형태의 서술(description)을 동반한다. 이 서술은 또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그러나 마음은 단순히 대상과 사건의 직접적인 이미지나 그것을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에는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특성과 관계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다른 이미지들이 존재한다. 어떤 한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들의 집합은 그 대상이나 사건에 관한 ‘생각’, 즉 그 대상이나 사건의 ‘개념’ 또는 ‘의미’에

9) 물론 화자가 ‘꿀이다’라는 표현 자체의 관습적 의미만을 언어적으로 학습한 경우라면 꿀에 대한 지각적 판단 경험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된다. 생각(개념과 그 의미들)은 기호들로 번역되어 기호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복잡한 기호들의 특별한 집합, 즉 말로 이루어진 언어로 발전할 수 있다.”¹⁰⁾

여기서 ‘지각 및 지각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언어 형태의 서술을 동반한다’라는 다마지오의 설명은 앞서 제시한 퍼스의 ‘지각적 판단’의 개념과 맞닿아있다. 더불어 그러한 ‘서술은 또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은 정신 명제로서의 “지각적 판단은 술부(predicate)로 도상(icon)을 가지며, 그 도상에 자질이 즉각적으로(immediately) 나타난다(CP 5.119).”라는 퍼스의 진술을 참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도상은 기호와 대상의 관계가 유사성으로 설명되는 기호이다(EP 1:226).¹¹⁾ 다시 말해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으로부터 분해하여 지각된 자질을 언어적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지각자에게 상기되는 친숙한 관념의 이미지를 통해 그 자질이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 속 친숙한 관념은 현재 지각되는 자질과 도상성을 갖는다.

따라서 꿀의 달콤함 등 그 대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 어떤 특정한 대상이 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써 언어적 지식에만 기반하여 ‘저것은 꿀이다’라는 해석체의 형성은 가능하더라도, ‘목소리가 꿀이다’라는 해석체를 형성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¹²⁾ 목소리로

10) 안토니오 다마지오, 『느낌의 진화 : 생명과 문화를 만든 놀라운 순서』, 임지원 · 고현석 역 & 박한선 감, arte, 2019, 123~4쪽.

11) 퍼스는 도상을 순수도상이 2차성으로 체현된 이미지(image), 다이어그램(diagram), 은유(metaphor) 등 세 개의 하위도상으로 구분하는데, 다마지오가 말하는 이미지는 하위도상으로서의 이미지의 개념보다는 도상성(iconicity)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께서 지각적 판단을 통해 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아니라도 관습적 의미에 기반하여 ‘목소리가 꿀이다’라는 해석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다. 물론 대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적 정보를 서술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관한 지각적 판단을 필수적으로 전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서술어 ‘꿀이다’의 은유적 의미가 관습화되기 전에 목소리의 자질과 꿀에 대한 지각적 경험 간에 질적 유사성을 찾는 측면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꿀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상

부터 분해된 자질과 유사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관념의 이미지가 지각자 내지는 화자의 정신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상으로부터 분해하여 지각한 고유한 자질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자질들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적 표현은 지각적 판단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띤다. 한편 흥미롭게도 근래 ‘꿀이다’라는 서술어는 형용사 ‘달다’처럼 기호가 재현하는 관념의 이미지가 관습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긍정의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달다’, ‘달콤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관습화된 은유적 의미 대신 꿀이라는 특정 대상에 관한 관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 샘>에서는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목소리가 너무 꿀이다”라는 표현을 용례로 삼아 명사 ‘꿀’을 ‘매우 뛰어나거나 좋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등재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때 ‘꿀이다’로 재현되는 자질적 속성은 ‘달다’라는 형용사의 은유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미각에서 느껴지는 단맛 그 자체가 아니라, 달콤함이 주는 ‘편안함, 흡족함, 만족스러움’ 등과 같은 관념적 자질에 해당한다.¹³⁾

이처럼 명사 ‘꿀’과 이를 매개로 개념화한 관념은 자의적이지 않고 그 대상에 관한 지각적 경험 가운데 생리학적인 인과 관계로 동기화되어 있

데에서 꿀이 달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지각적 판단 경험이 없는 대상보다는 지각적 판단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목소리에서 지각한 감각적 자질과의 도상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직접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 13) 단적으로 아이들은 단맛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강하게 선호하면서도, 그 외의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의 음식에 대해서는 표정을 찡그리거나 바로 내뱉어버리는 등의 거부감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독 단맛은 다른 맛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 흥미롭게도 어떤 대상의 속성을 맛의 감각으로 비유할 때, 맛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맛인 ‘단맛-쓴맛’의 관계는 ‘만족스러움-괴로움’과 같이 긍정-부정의 감정 상태로 유추(analogy)된다. 이때 긍정적인/부정적인 감정은 맛의 감각에서 은유적으로 도출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형용사 ‘달다’는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로, ‘낮잠을 달게 자다’를 용례로 들고 있다. 한편 형용사 ‘쓰다’는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라는 의미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언제나 그 맛은 썼다’를 용례로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 ‘짜다’는 ‘인색하다’, ‘맵다’는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일반적으로 꿀이라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특히 미각적으로 경험했다면 그로부터 달콤함이라는 자질을 분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달콤함은 경험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 느낌은 곧 꿀을 구성하는 이미지, 즉 자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소리가 달다’와 ‘목소리가 꿀이다’가 재현하는 관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감미로운 목소리에서 지각되는 감각적 자질을 형용사 ‘달다’의 관념으로 해석하느냐, 달콤함의 자질을 갖는 대상의 이름인 ‘꿀’의 관념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향진적 표현 및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를 일반적 인 명제 기호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꿀이다”	“이것은 달다”	“목소리가 꿀이다” “꿀은 꿀이다”
서술어의 형태	명사+이다	형용사	명사+이다
서술어의 재현 관념	‘꿀’의 개념	‘달콤함’의 자질	‘꿀’의 자질
두 관계항의 관계	이것 = 꿀	이것 \supset 달콤함	목소리/꿀 \supset 꿀의 자질

[표 1] 일반 명제 기호와 향진적·은유적 표현 비교

마지막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꿀이다’는 ‘이것은 꿀이다’라는 명제의 서술어와 동일한 형태를 띠지만, 주어와 서술어를 이루는 명사의 두 대상은 등치(equal value) 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형용사 ‘달다’와 같이 대상의 자질이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관념을 재현한다. 그러나 그 관념은 관습화된 형용사와 달리 꿀의 대표적인 자질적 속성인 달콤함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한 해석자들이 각각 목소리와 꿀로부터 분해한 자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꿀이다’가 재현하는 관념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모든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이 지각적 판단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례로 ‘약속은 약속이다’와 같은 향진적 표현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관념을 재현하는 경우, 약속의 당위성은 지각할 수 있는 외부세계의 현상으로부터 추상화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적 판단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대상에 관한 가치 판단을 일반화하여 개념화한 경우, 해당 표현의 서술성은 후술하게 될 논리적 해석체 개념에 한정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사랑은 우주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의 경우도 지각적 경험 없이 우주의 공간이 무한하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통해 일례로 ‘내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관념을 재현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는 관습화된 의미로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였다고 해도 다른 대상을 통한 지각적 판단 경험에 기반하여 그 관념을 감각적으로 이미지화한다. ‘끝이다’라는 서술어의 관습화된 의미의 경우, 해당 서술어로 설명되는 지각 가능한 대상을 통해 특정 자질을 감각적으로 체화함으로써 온전히 개념화하는 것이다. 즉 다른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가운데 관습화된 관념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우주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우주의 고요함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이때 화자는 우주의 고요함을 이론적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자질을 지각하여 개념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Ⅲ. 정보 및 개념화의 기반: 논리적 해석체

한 개인이 특정 대상의 자질적 속성을 ‘끝’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끝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정보 개념은 앞서 제시한 다마지오의 인용문 가운데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들의 집합은 그 대상이나 사건에 관한 ‘생각’, 즉 그 대상이나 사건의 ‘개념’ 또는 ‘의미’에 해당된다”¹⁴⁾라는 설명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이

14) 안토니오 다마지오, 앞의 책, 124쪽.

는 사전적 정의와 같은 언어적 의미로서의 개념보다 확장된 차원으로, 꿀이라는 대상에 관한 모든 가능한 ‘생각’이자 이를 일반화하여 개념화한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퍼스의 ‘해석체’ 개념과 연결된다. 퍼스는 “해석체의 분량을 그 단어의 정보 또는 함축(implication) (W 1:464-465)”¹⁵⁾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기호는 다른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대신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호가 재현하는) 그 다른 것은 기호의 대상(object)이다; 기호가 정신에 불러일으키는 관념(idea), 즉 같은 대상에 대한 정신 기호(mental sign)는 그 기호의 해석체라 불린다 (EP 2:13).”

이러한 측면에서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를 이루는 명사가 하나의 기호로서 재현하는 대상은 명사가 지시하는 외부세계의 특정 개체가 아니라, 그 개체를 지각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의 출처이다. 이때 그 기호가 정신에 불러일으키는 관념은 곧 해당 기호의 해석체로서, 꿀에 대한 지식이자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체의 형성에도 ‘지각적 판단’의 과정이 선행된다. 일례로 ‘꿀’이라는 기호가 정신에 불러일으키는 달콤함 또는 그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인 감정 등에 관한 관념은 곧 꿀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지각하여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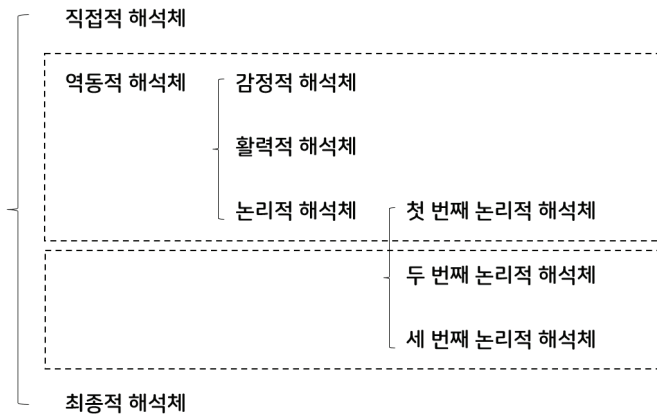
더불어 퍼스가 해석체의 ‘분량’을 그 단어의 정보라 일컫는다는 것을 통해 단어의 정보는 단일한 해석체가 아닌 여러 해석체의 종합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퍼스가 정

15) 제임스 리슈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개정판]』, 이윤희 역, HU:iNE, 2019, 84쪽에서 재인용

16) 달콤한 맛으로부터 경험한 행복함 따위의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관념의 형성 역시 마찬가지다.

보를 “기호의 깊이와 넓이가 체계적으로 교차된 지점의 차원에서 획득된 의미(CP 2.419)”¹⁷⁾로 설명한다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깊이와 넓이의 증가는 곧 정보의 증가를 의미한다.¹⁸⁾ 무엇보다 그러한 정보는 개별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명제 기호의 형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퍼스의 해석체 분류 가운데 특히 ‘논리적 해석체’로 볼 수 있다.

드발(C. de Waal)이 제시한 퍼스의 해석체 분류에 따르면, 역동적 해석체의 하위 구분으로 ‘감정적 해석체(emotional interpretant), 활력적 해석체(energetic interpretant), 논리적 해석체(logical interpretant)’가 있다.¹⁹⁾ 이러한 해석체의 3중 구분을 도표로 제시하면 [그림 1]²⁰⁾과 같다.



[그림 1] 퍼스의 해석체 유형 분류

일례로 우리가 꿀을 먹고 꿀의 달콤함으로부터 즐거운 감정을 느꼈다

17) 제임스 리슈카, 앞의 책, 83쪽에서 재인용

18) 퍼스가 말하는 기호의 깊이와 넓이는 각각 명제 기호에서 서술어가 주장하는 것과 주어가 지시하는 것으로 대변된다(CP 5.471).

19) 코르넬리스 드발, 『퍼스 철학의 이해[개정판]』, 이윤희 역, HUINE, 2019, 139쪽.

20) 홍승혜, 앞의 글, 40쪽에서 재인용

거나 혹은 꿀의 향이 강해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다면 그 역시 꿀이라는 대상으로부터 분해하여 지각한 자질과 관련하여 형성된 해석체이다. 퍼스는 전자를 ‘감정적 해석체’, 후자를 ‘활력적 해석체’라 칭한다. 하지만 기호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결과는 그 기호에 관한 정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어떤 기호가 감정이나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더라도 기호의 효과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다’라는 논리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고유한 자질을 기존의 익숙한 관념과 비교하여 언어기호를 통해 해석하였을 때 비로소 논리적 해석체가 형성될 수 있다.

퍼스의 범주화에 따르면 논리적 해석체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논리적 해석체는 추측에 불과한 단계이며, 두 번째 논리적 해석체는 “기호 자체의 궁극적이고 표준적이며 고유한 정신적 효과(mental effect)(MS 318:46 [1907])”로서 비로소 정보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리적 해석체는 기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외부세계의 실험을 통해 기존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단계(MS 318:47 [1907])에 해당하며, 이는 뒤이어 논의할 정보의 성장 개념과 연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 즉 특정 대상에 관해 개념화할 수 있는 관념의 기반으로는 첫 번째 논리적 해석체를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논리적 해석체를 고려할 수 있다.

향진적 표현의 생성도 마찬가지이다. 향진적 표현의 생성 및 발화에는 지각적 판단이 선행된다. 일례로 ‘꿀은 꿀이다’라는 표현은 화자가 꿀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자질적 요소를 분해하여 ‘꿀이 어떠하다’와 같은 지각적 판단이 이뤄졌을 때 가능해진다. 해당 표현이 단순한 동어반복을 의도한 표현일지라도 외부세계의 대상에 대한 지각적 판단이 전제된다. 한편 ‘꿀은 꿀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꿀에 관한 어떤 속성이나 상태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화자에게 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넘어 또 다른 지각적 판단을 통해 꿀에 관한 속성, 즉 그에 관

한 관념을 일반화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이 전제된다.²¹⁾

꿀에 관해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질적 속성은 다양할 수 있지만, 논의를 편의를 위해 달콤함 외에 꿀의 속성으로서 개념화할 수 있는 관념을 임의로 제시하면 (1)과 같다.

(1) 꿀은 꿀이다.

가. 꿀은 텅텅하다.

나. 꿀은 향이 강하다.

(1가-나)에 제시한 꿀에 관한 서술은 화자가 꿀 또는 그에 관한 사건 가운데 경험한 지각적 판단 과정에서 대상으로부터 특정한 속성을 분해하여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꿀에 대한 지각적 판단 결과 형성된 논리적 해석체이다. 이는 은유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지시하는 각각의 대상을 인식하거나 그 대상을 범주화할 수 있는 사전적 정의의 범위를 넘어선다. 향진적 표현에서 ‘꿀이다’라는 서술어가 ‘텅텅함, 향이 강함’이라는 관념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꿀로 인식된 대상으로부터 분해하여 지각한 자질이 상기 ‘꿀’의 관념과 다름없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꿀은 꿀이다’라는 표현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이때 ‘꿀은 꿀이다’라는 향진적 표현 그 자체 역시 지각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해석체에 해당한다. 꿀의 텅텅함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꿀은 텅텅하다’라는 논리적 해석체의 관념을 ‘꿀’을 매개로 개념화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다시금 꿀의 텅텅함을 지각하였을 때 이를 형용사 ‘텅텅하다’의 관념이 아닌 명사 ‘꿀’의 관념으로 해석함으로써 형성된 논리적 해석체가 ‘꿀은 꿀이다’인 것이다.²²⁾ 이러한 측면은 은유적 표현의

21) 다만 앞서 살펴본 은유적 표현과는 달리 향진적 표현은 주어를 주어와 같은 대상의 관념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5장에서 논의한다.

22) 해석자가 개념화한 꿀에 관한 관념은 해당 명사가 계사 ‘-이다’와 결합할 때 비로소 대상을 서술하는 관념으로 재현된다.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두 유형의 명제 기호는 ‘A는 A이다’와 같은 명제 기호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해석체의 형식과 상응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항진적 표현은 은유의 사례와 달리 주어와 동일한 명사의 관념으로 대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항진적 표현은 주어에 관한 화자의 현재 판단이 그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관한 이전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내포하게 된다. 다시 말해 ‘꿀은 꿀이다’라는 표현은 “꿀은 ‘이전의 판단과 다름없이’ 텅텅하다/향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꿀에 관해 개념화한 관념 가운데 어떤 측면이 현재의 판단에서 활성화되는지는 지각적 판단이 이루어진 화자의 현재 의식 가운데에서만 알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항진적 표현의 사례로서 (2)를 살펴보자.

(2)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가. 손흥민은 겸손하다.

나. 손흥민은 부지런하다.

구체적인 맥락으로서 손흥민이 자신의 해트트릭으로 이뤄낸 팀의 승리를 동료들의 공(功)으로 돌리는 모습을 가정해보자. 이로부터 ‘겸손함’의 자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각적 판단의 결과 ‘손흥민은 겸손하다’라는 논리적 해석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화자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통해 ‘겸손함’의 관념을 이미 개념화하고 있었다면, 그 속성은 ‘겸손하다’라는 형용사보다 더 직접적으로 ‘손흥민’의 고유한 관념으로 해석될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맥락에서는 같은 표현이 (2나)의 관념을 재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념 정보는 다름 아닌 대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나 진술로부터 형성된 해석체들을 기반으로 하며, 그 대상의 이름과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다.

IV. 논리적 해석체에 기반한 정보의 성장

이처럼 지각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해석체의 형성은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된다. 지각적 판단을 언어적으로 번역한 논리적 해석체는 개인의 내면세계에 개념화한 관념을 참조하여 해석한 결과이므로 개인이 갖는 정보의 양상에 따라 두 명제 기호의 생산성도 달라진다. 즉 기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기호의 관념으로 대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판단 경험에 따라 논리적 해석체의 집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해석체의 집합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고 또 확장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해석체의 3중 구분 가운데 세 번째 논리적 해석체의 개념은 기존의 사고 습관을 벗어나 정보가 확장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퍼스에 따르면 명제 기호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해 무엇이든 추가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어떤 단어를 그 단어와 같은 뜻이 되도록 만든다(W 1:464).” 앞서 언급하였듯이 논리적 해석체는 명제 기호의 형식을 취하며, 정보는 기호의 깊이와 넓이가 체계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정보의 확장이 설명될 수 있다.

각 단어에는 그와 관련한 논리적 해석체의 관념을 개념화하기 이전에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반 관념(=개념)이 연동되어 있다. 그 조건이 만족 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개인의 판단 및 해석이라는 추가적인 정보는 더해질 수 없다. 일례로 ‘꿀은 어떠하다’와 같은 판단 및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질을 분해해낸 저 대상이 다름 아닌 ‘꿀’로 범주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특정 대상을 꿀로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개념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 꿀을 이루는 자질의 해석할 가능성은

꿀에 관한 개인의 경험 양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 양상은 지각적 판단을 통해 꿀로부터 어떤 자질을 분해하여 보편적 속성으로 일반화하고 개념화하였는지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꿀로부터 달콤함을 분해하여 ‘꿀은 달다’라는 해석체가 형성되었다면, 달콤함이 꿀에 관한 관념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²³⁾ 그러나 같은 대상을 경험하더라도 또 다른 해석자는 달콤함의 자질을 분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마다 달콤함의 역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꿀로부터 쓴맛이나 텅텅함을 분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상에 달콤함의 자질이 없다기보다 그 해석자가 ‘달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개념화한 관념의 원형이 다른 해석자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어의 깊이는 보편화하기 어렵다. 만 6세 아이에게 ‘꿀’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끈적끈적하고 노란 거’라고 답하였다. 이때 ‘끈적끈적함’과 ‘노랑’이라는 자질은 ‘꿀’로 일컬어지는 대상에 대한 지각적 판단 과정에서 분해된 질감과 색상의 속성에 해당한다.²⁴⁾ 아이는 꿀로 인식된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꿀은 끈적끈적하다’, ‘꿀은 노랑다’와 같은 논리적 해석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때 아이는 끈적함과 노랑이라는 자질적 속성을 꿀에 관한 관념으로서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달콤함이라는 자질이 일반적으로 꿀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꿀의 맛을 모르거나 이를 개념화하지 못한 개인에게 달콤함은 꿀에 관한 정보가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꿀에 관한 지각적 판단의 경험이 늘어나면, ‘달다, 텅텅하다, 향이 강하다’ 등의 새로운 논리적 해석체가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

23) 홍승혜(2022)에서는 이 과정을 피스의 ‘분해적 추상화(precisive abstraction)’와 ‘실재적 추상화(hypostatic abstraction)’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의 적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24) 물론 아이는 꿀을 직접 지각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진술을 통해 꿀이 끈적끈적하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끈적끈적하다’라는 관념을 꿀에 연결하는 것은 끈적끈적한 다른 대상을 지각적으로 경험하여 끈적끈적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화하고 있을 때 가능해진다.

보의 확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의 정보가 확장된다는 것은 꿀을 꿀의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다양한 맥락에서 은유적 표현 및 항진적 표현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꿀의 달콤함만 알고 있는 사람은 꿀의 향이 강하다는 판단이 발생했을 때 ‘꿀은 꿀이다’와 같은 해석체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내면세계에는 대상으로부터 분해된 자질의 이미지가 꿀에 관한 관념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손흥민’에 관해 개념화할 수 있는 관념은 세계 지식이나 상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2)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은 손흥민이다’라는 항진적 표현에서 ‘손흥민이다’라는 서술어가 축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정보를 재현하는 표현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을 대한민국의 뛰어난 축구선수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인식할지라도,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은 무수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된 해석체의 형성도 다채로울 수 있다. 따라서 항진적 표현의 서술성은 화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해 어떤 관념을 개념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발화 시점에 화자가 대상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항진적 표현의 서술어를 이루는 명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반화한 정보를 단순히 ‘관습적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논리적 해석체의 개념으로 논의할 근거가 마련된다. 무엇보다 퍼스가 설명하는 ‘해석체’는 기호가 해석자에게 미치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로서 모든 해석자에게 맥락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어의 개념을 논리적 해석체에 기반한 정보의 개념으로 확장한다면, 비록 대상으로부터 분해하여 해석한 자질적 속성이 보편적 경험에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특정 관념을 개인의 내면세계에 개념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성을 얻는다.

한편 앞서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그 자체는 모두 논리적 해석체

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특정 대상에 관한 정보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논리적 해석체의 개념적 특성과 달리 항진적 표현 그 자체만으로는 대상에 관한 정보의 성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보조관념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은유와도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항진적 표현의 특성은 퍼스의 기호 논리 및 실용주의(pragmaticism) 원리와 상충하지만, 해당 표현이 동어반복이 아닌 이상 담화 맥락 가운데 서술어를 통해 재현되는 관념이 적절하게 추론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다.

V.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비교

상기 논의를 정리하면,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명사+이다’는 화자의 내면세계에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과 관련한 관념의 개념화가 선행되었을 때 특정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대상에 관한 관념의 개념화 및 그 기반을 퍼스의 ‘지각적 판단’ 및 ‘논리적 해석체’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두 유형의 명제 기호를 통해 주어로 지시된 대상의 자질적 속성을 설명하는 경우 그 대상에 관한 지각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화자가 내면세계에 개념화한 관념들은 그 대상에 관한 지각적 판단으로부터 형성된 논리적 해석체의 집합과 다름없다.²⁵⁾

이러한 특정 대상에 관한 관념의 개념화가 선행되었다면, 일례로 꿀에서 달콤함을 지각하였을 때 ‘꿀은 달다’와 ‘꿀은 꿀이다’라는 두 유형의 명제 기호 생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꿀에서 분해된 달콤함의 자질은 모든 단맛을 아우를 수 있는 관념을 일반화한 ‘달다’라는 형용사

25) 한편 대상으로부터 지각 가능한 자질이 아닌 그 대상에 관한 가치판단 등을 개념화하는 경우 지각적 판단을 필수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나, 명제 기호의 형태를 띠는 논리적 해석체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는 점을 밝혔다.

보다 ‘꿀의 달콤함’을 개념화한 ‘꿀’의 관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직접적인 것이다. 후자의 경우 기호에 그 관념의 출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의 관념을 참조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닌 항진적 표현을 생성하고 발화하는 동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항진적 표현은 특정 대상을 그 대상에 관한 자기 경험에 기반하여 개념화한 관념으로 해석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적 판단 및 논리적 해석체를 기반으로 개념화한 관념으로 대상을 설명한다는 공통된 기제를 갖는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은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은 정보의 차원에서 특정 기호의 깊이를 참조하는 동기가 다르다.

은유적 표현의 경우,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으로부터 분해하여 지각한 자질과 유사성을 갖는 ‘다른’ 대상의 재현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유사한 재현적 특성을 갖는 기호와의 연결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두 관계항의 연결은 은유적 표현을 생성하는 시점이 최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관계항의 연결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한다. 한편 항진적 표현은 대상으로부터 개념화한 관념을 통해 그 대상을 다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지각적 판단 및 해석체의 재현이다.

다시 말해 은유적 표현은 다른 대상에 관한 관념, 즉 다른 기호의 깊이로 특정 대상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다는 동기에 의해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유사한 재현적 성격을 갖는 기호가 참조된다. 한편 항진적 표현은 대상의 관념을 새롭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주어와 같은 대상의 관념으로 직접적으로 설명된다는 측면에서 기호의 정보가 참조된다. 이로 인해 주어를 주어와 같은 기호의 깊이로 설명하는 항진적 표현은 은유와 달리 표현의 생성 그 자체로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현재 판단은 이전에 판단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내

포하게 된다.

더불어 해석자의 내면세계에 특정 대상의 고유한 자질적 속성을 개념화하는 기호가 있다면, 그 친숙한 관념의 기반이 되었던 자질적 속성을 다시 지각했을 때 이를 다른 기호를 통해 개념화한 관념에 견주어 생각할 동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얼음으로부터 차가움의 자질을 지각한 해석자가 ‘얼음은 차갑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차가움’을 얼음이 갖는 보편적인 자질적 속성으로 일반화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겐 이를 ‘차갑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게 느껴진다. 그 발화의 목적이 얼음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말이다.

마찬가지로 은유와 같이 다른 기호를 통해 대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관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친숙한 관념의 기호가 없거나, 대상을 다른 기호의 관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현적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일 수 있다. 즉 은유적 표현을 구성하는 두 관계항의 관계는 향진적 표현처럼 주어를 그 기호의 관념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향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은 특정 대상을 개인의 내면세계에 개념화한 친숙한 관념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제를 갖지만, 친숙한 관념의 참조가 다른 기호에 기반하는지 또 해당 표현의 생성이 의도성을 갖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둘째, 향진적 표현과 달리 은유적 표현은 재현 가능한 기호의 깊이에 제약이 가해진다.

소통의 측면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경험 및 논리적 해석체에 기반하여 개념화한 관념은 은유의 보조관념으로 활용되었을 때 재현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일례로 한 개인이 꿀에 관해 맛이 쓰다는 관념을 개념화한 것을 기반으로 생강의 쓴맛을 두고 ‘생강은 꿀이다’라고 표현했다고 가정해보자. 화자는 생강의 재현적 특성과 꿀의 재현적 특성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해당 표현을 매개로 한 소통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와 같은 표현의 발화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은유적 표현은 기호의 재현적 특성의 보편성을 통해 대상을 쉽게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일례로 만약 ‘쓴(bitterness)’이라는 자질적 속성이 꿀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식된다거나 혹은 관습적으로 굳어진 관념이라면 ‘생강은 꿀이다’라는 은유적 표현은 생강은 맛이 쓰다는 관념을 재현할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꿀로 범주화되는 대상에 관한 지각적 판단은 쓴맛보다는 단맛의 자질을 분해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어떤 가능 세계에서 생강의 속성을 꿀이 갖는 재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위해서는 쓴맛이 꿀을 구성하는 자질적 속성이라는 공통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항진적 표현의 경우도 표면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대한 관념이 드러나지 않으며, 특히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개념화한 관념으로 대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 따르면 항진적 표현은 같은 대상에 관한 이전의 지각적 판단 및 논리적 해석체에 기반하여 ‘주관적으로’ 개념화한 관념으로 그 대상의 속성이 직접적으로 해석된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가 해석자의 내면세계에 친숙한 이미지로 이미 개념화되어 있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관념일지라도 이를 재현의 관념으로 적용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이 청자에게 미치는 부가적인 효과도 달라진다. 은유적 표현의 경우, 청자는 다른 관념에 기반한 새로운 설명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한편 항진적 표현을 통해서서는 이해를 확장하기보다는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익숙한 이미지를 다시 지각하였다는 무의식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관념을 짐작할 뿐이다. 그 관념에 대한 청자의 짐작은 발화 맥락을 추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항진적 표현을 매개로 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화자가 설명하고자 했던 대상의 속성을 청자가 유추할 수 있는 맥락이 간접적으로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Ⅵ. 나오며

본 연구는 일반적인 명제 기호와 구분되는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를 퍼스의 기호학 개념을 통해 인지적 과정으로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두 유형의 명제 기호는 주어의 대상을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대상의 속성을 분해하여 해석한 결과로 퍼스가 말한 ‘지각적 판단’의 개념과 상응하며, 지각적 판단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신 명제는 ‘논리적 해석체’에 상응한다. 이때 대상의 속성을 해석하는 데 참조되는 관념 역시 대상에 대한 지각적 판단 또는 다른 사고 과정을 통해 형성된 논리적 해석체의 집합이다.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는 각각 발화 맥락에 따라 화자가 서술하려는 주어의 상태에 따라 다른 관념을 재현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서술어 ‘명사+이다’를 구성하는 명사와 관련하여 개인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개념화한 관념의 기반을 논리적 해석체로 설명함으로써 언어적 혹은 관습화된 개념의 범주를 확장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퍼스가 말하는 기호의 해석체는 한정되거나 정적이지 않으며 무한하게 성장할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의 대상에 관한 관념의 깊이가 성장함에 따라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물론 ‘나는 나다’와 같이 맥락에 따라 ‘나’로 지칭되는 대상에 관한 다른 관념을 재현하기보다는 ‘나는 너와 다르다’ 혹은 ‘나는 고유한 존재다’와 같이 그 의미가 관습화된 표현의 사례도 있다.²⁶⁾ 그러나 이 역시

26) 은유적 표현 역시 두 관계항의 유사한 재현적 특성으로부터 다양한 관념들을 발견할

‘나’라는 존재에 대해 개념화한 관념으로 ‘나’에 대해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나’에 관해 지각하고 해석한 바가 없다면 비록 관습적일지라도 항진적 표현의 생성 자체가 제약된다. 더불어 해당 표현의 경우 기호와 그것이 재현하는 관념의 관계가 습관화 되었을 뿐이지 다른 관념의 재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항진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의 두 관계항의 결합 양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점 또한 두 명제 기호의 형식을 구분하게 해준다. 항진적 표현의 경우, 두 관계항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화자에게 주어와 그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해석하는 관념 간의 연결이 익숙하다. 한편 후자는 주어와 전혀 다른 대상의 관념을 참조한다는 점에서 그 연결이 익숙하지 않다. 이로써 항진적 표현은 은유적 표현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한 친숙한 판단의 재현이라는 관념을 재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진적 표현은 은유의 사례가 아닌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궁극적으로 항진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에 대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다양한 명사들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개별적 표현 사례들의 함축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물론 담화와 소통의 측면에서 개별적 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항진적 표현 및 은유적 표현의 서술어 기제에 대한 메타적 이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 및 인공지능의 의미 추론 능력 훈련 등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에 관한 확장된 연구에 유의미한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수 있음에도, 자주 인용되거나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관습화된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 안토니오 다마지오, 『느낌의 진화: 생명과 문화를 만든 놀라운 순서』, 임지원 · 고현석 역 & 박한선 감, arte, 2019.
- 이미순, 「항진 명제 발화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담화와 인지』 16(2), 담화 · 인지언어학회, 2009, 123~147쪽.
- 이정애, 「국어 항진명제에 대한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2010, 179~202쪽.
- 전혜영, 「국어 담화에 나타나는 ‘X는 X다’ 표현의 화용 양상」, 『국어학』 64, 국어학회, 2012, 273~299쪽.
- 제임스 리슈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개정판]』, 이윤희 역, HU:iNE, 2019.
- 최중열, 「항진명제(tautology)의 의미해석」,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소, 1992, 139~150쪽.
- 코르넬리스 드발, 『퍼스 철학의 이해[개정판]』, 이윤희 역, HU:iNE, 2019.
- 홍승혜, 『항진적 표현의 기호학적 접근: 명사의 서술 관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 D. Anderson, “Peirce on metaphor”,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20(4). 1984, pp. 453-468.
- S. C. Levinson, *Pragmatic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C. 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Ed. Hartshorne, C. and Weiss, P.(vols. 1-6), and Burks, A.(vols 7-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58.
- C. S. Peirce, *An Original Manuscript*, numbered according to Prof Richard S. Robin’s annotated catalogue, 1967.
- C. S. Peirce,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2 vols, Ed. Houser, N. and Kloesel, C. (vol. 1), and The Peirce Edition Project (vol. 2),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9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https://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URL: <https://opendict.korean.go.kr>

The Semiotic Approach to the Predicate Mechanism of Tautological Expressions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Focusing on ‘Perceptual Judgment’ and ‘Logical Interpretant’

Hong, Seung-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discussion of the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of propositional signs to the cognitive dimension by explaining the predicate mechanism of tautological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through Peirce's concepts of semiotics. Above all, it is worth discussing the distinct sign mechanism of tautological expressions in that ‘A is A’ has become a commonly used sentence type in everyday life. I focus on that the predicate ‘noun+yida(=is)’ describes the property or state of the subject, like a verb or adjective, rather than categorizing the subject or placing the two concepts in an equivalence relation. I suppose that the idea that ‘noun+yida(=is)’ represents presupposes the speaker's conceptualization of the object that the noun refers to. The conceptualization is based on ‘perceptual judgment’, the process of abstracting qualities from the object and interpreting them, and ‘logical interpretant’, which takes the form of propositional signs. This explains how the same expression can represent different predicate-ideas depending on the speaker and context. On the other hand, I point out that tautological expressions are distinguished from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erms of formality in that the two relata are the same.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positional signs is closely related to the motive for the interpreter to refer to the conceptualized idea and the representational effect of the signs. Meta-understanding of the predicate mechanism of two propositional signs is expected to support expanded research on language communication, including machine translation and reasoning skill trai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Keywords : propositional sign, tautological expression, metaphorical expression,
perceptual judgment, logical interpretant, Peirce's semiotics

투고일: 2022. 11. 23./ 심사일: 2022. 12. 10./ 심사완료일: 2022. 12. 19.